

담화에서 지엽적 의미연결 인식 연구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허선익*

<차 례>

- I. 들머리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V. 마무리

I. 들머리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문법교육의 자리매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1차에서 5차 개정교육과정까지는 국어교과와 다른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국어라는 교과목 속에 문법을 녹여서 가르쳐 왔으며, 6차, 7차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자리가 바뀌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점점 문법을 선택과목으로 하는 학교가 거의 없는 실정이 되었다. 그러다가 2007 개정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적용·실시되는 시점에서부터 독서와 통합되어 ‘독서와 문법 I·II’이라는 교과서가 마련되었다. 이런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전개를 살펴보면 문법교육은 그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허선익(2009)에서 지적하였듯이, 모국어 화자들

* 경남과학고 교사(hesi@chol.com)

에게 문법에 대한 자각은 중요하기 때문에 국어교육에서 문법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문법교육에서 담화 문법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그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좀 더 명시적으로 담화와 글로 문법교육의 범주를 넓혀 놓았다. 이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제로 문법 영역에 반영되는 내용은 그렇게 폭넓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담화 인지, 인지심리학, 인지언어학, 언어심리학, 텍스트언어학 등의 여러 연구 성과들이 있음에도 이들 연구 성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¹⁾ 좀 더 적극적으로, 문장을 넘어서는 담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문장과 문장의 결합, 단락과 단락의 결합으로 한 편의 담화²⁾가 완성되는 원리와 규칙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담화의 구성 원리 가운데 통사결속(cohesion)과 의미연결(coherence)³⁾이 담화 문법교육의 일부로 설정되어 있음⁴⁾에 착안하여 학습자들에게 실제로 이들 개념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 1) 물론 이들 관련 학문의 연구 성과가 그대로 국어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안목을 이들 학문이 열어주고 있으므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2) 교육과정 해설에서는 입말 텍스트를 담화로, 글말 텍스트를 글로 풀이하고 있다. 이런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필자는 담화를 상위어로 두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한다. 입말/글말을 구분하면서 입말을 푸대접했던 지난날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매체에 따른 의사소통 활동은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체에 따른 구별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굳이 구별한다면 산출에 관련되는 텍스트를 담화로, 이해에 관련되는 텍스트를 글로 보는 것이 의사소통 활동을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김지홍 2010 참조).
- 3) 연구자는 김지홍(2010 : 103)의 논의를 받아들여 이들을 각각 통사결속과 의미연결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문제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대명사의 결속을 해결하는 과정에도 의미연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의미연결을 두 차원으로 나누어 문단 안에서 의미연결을 지엽적 의미연결(local coherence)로, 문단과 문단 사이의 의미연결을 전국적 의미연결(global coherence)로 구분한다(이는 인지심리학 등에서 쓰는 의미와 부분적으로 겹친다). 여기서는 문단 안에서 의미연결을 다루고 있으므로 지엽적 의미연결이라는 말을 쓴다.
- 4) 개정 7차 교육과정(2007)에서 이들과 관련된 성취기준 항목은 다음과 같다.
 6학년 문법(2) 문장의 연결관계를 이해한다.
 7학년 문법(5)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9학년 문법(4) 담화 또는 글 구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알아보고자 한다.

담화가 전개되는 방식은 한결같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담화가 전개되는 방식 가운데 지금까지는 주로 글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텍스트언어학에서 글의 구조에 대한 접근은 단락과 단락의 의미연결에 초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입말에서 발화의 단위는 훨씬 더 작을 뿐만 아니라 대명사의 생략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글말에 대한 접근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로 중심소 이론(Centering theory)을 들 수 있다.

논의를 위해서 먼저 이 연구에서 이론적 기반이 되는 중심소 이론을 간략히 살피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심소 이론과 담화 문법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지엽적 의미연결의 양상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양적인 분석을 하고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기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통사결속과 의미연결은 덩잇글다움의 기본 속성으로 종종 지적되곤 한다(보그란테와 드레슬러, 1981). 그리고 이런 속성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논의들이 국내에서 200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김봉순 2002, 김재봉 1999, 이은희 2000). 아울러 담화의 속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의미연결 되거나 통사결속 되는 모습이 한결같지 않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를 밝히고자 하는 여러 논의들이 있었다. 미시구조나 대명사를 대상으로 하여 텍스트언어학이나 기능문법 연구가 있었으며 담화 분석에서도 연구가 이뤄졌다. 대표적인 논의로 중심소 이론(Centering theory)⁵⁾을 들

5) 중심소는 중심요소를 줄인 용어이다. 중심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담화의 전개에서 주의집중의 초점이 되는 개체를 가리킨다. 한편 centering theory를 중심화 이론으로 뒤치기도 하였다(김미경 2003, 신효정 2005). 화자의 입장에서는 중심소를 배치하는 과정이 담화의 전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자의 입장에서는 중심소를 자리매김하는

수 있다.⁶⁾

담화가 의미연결되어 있다고 인식되는 다음의 사례 (1)과 (2)에서, 차이를 설명해 주는 담화 처리 관련 요인들은 중심소 이론에서 대표적인 설명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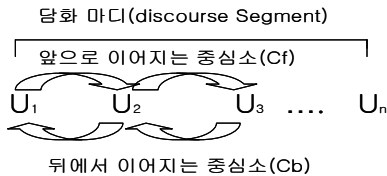
- (1) ① 세차하는 갑수를 철수가 도와주었다.
 ② 갑수가 차에 왁스를 먹이는 동안 그는 차문을 닦았다.
 ③ 그는 한쪽 차문에 비누칠을 하였다.
- (2) ① 세차하는 갑수를 철수가 도와주었다.
 ② 갑수가 차에 왁스를 먹이는 동안 그는 창문을 닦았다.
 ③ 그는 엔진 덮개를 부드러운 천으로 광을 내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문제되는 두 가지는 독자/청자가 (1), (2)의 ③ 문장에서 ‘그’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1)과 (2)의 사례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데 속도나 정확도에 차이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1), (2)의 ③ 문장에서 ‘그’가 가리키는 대상이 확인할 수 있다면 의미연결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담화에 대한 추론 이론에서 예측하는 내용은 이것이다. 그렇지만 중심소 이론에서는 (1)보다는 (2)의 사례에서 ③ 문장에 나오는 ‘그’를 추론하기 더 어렵다고 예측한다. 그 이유는 (1)의 ①, ②에서 중심소는 철수이며 그에 따라 ③에서도 ‘그’가 가리키는 담화의 중심소 ‘철수’이다. 그에 비해 (2)-③에서는 중심소의 이동이 있어서 ‘그’가 가리키는 대상은 ‘갑수’가 된다. 따라서 새로운 중심소가 도입되는 (2)가 (1)보다 덜 의미연결 되어 있고 따라서 처리에서 시간이 더 걸리고 부주의하게 되면 ‘그’가 가리키는 대상을 잘못 지적할 수 있다.

과정이 담화 이해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들을 싸안을 수 있는 마땅한 용어를 찾기가 쉽지 않다.

- 6) 그 동안의 중심소 이론에 대한 논의는 발화 차원, 언어 보편적인 차원, 정보 구조 차원, 담화 처리 차원, 담화 구조 차원으로 나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살핌은 Walker, Joshi, Prince(위음 1998)를 참조할 수 있는데 중심소 이론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가 이 다섯 가지 주제에 따라 잘 정리되어 있다.

이처럼 중심소 이론은 문장 안에서 실현된 중심소가 발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⁷⁾ 중심소는 담화 마디⁸⁾에서 개별 발화를 위한 담화 모형의 일부인 의미론적 개체이다. 중심소 이론에서는 중심소를 세 갈래로 구분한다. 하나는 발화의 앞으로 이어지는 중심소(forward-looking center; Cf)와 뒤에서 이어지는 중심소(backward-looking center; Cb)가 먼저 구별된다. 앞으로 이어지는 중심소는 담화 마디 D에 있는 발화 U_i 에 의해 환기되는 담화 개체를 나타낸다. 뒤에서 이어지는 중심소는 흔히 담화 문법에서 주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떤 발화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담화 개체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연역해 보면 뒤에서 이어지는 중심소는 앞으로 이어지는 중심소 가운데 하나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뒤에서 이어지는 중심소는 앞의 발화와 현재의 발화를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보이면 <그림 1>과 같다.⁹⁾



<그림 1> 중심소가 이어지는 모습

- 7) 중심소 이론의 기본 열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조쉬, 쿤과 바인슈타인(Joshi, Kuhn, Weinstein 1981)에서 제안된 것으로 양화사 표현에 대한 제약으로 제안되었다. 전칭 NP가 중심소인 경우에만 보편 사례가 허용되고 중심소에 영향을 미칠 때에만 특칭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였다. 다른 하나는 그로즈와 시드니(Grosz and Sidner 1986)의 연구에서 담화에서는 주의집중의 두 층위 즉 지엽적인 초점과 전체적인 초점이 있다. 그 가운데 중심소 이론은 주로 지엽적인 주의집중에 초점을 맞추었다.
- 8) 담화 마디에 대한 논의는 담화 구성과 관련하여 박성현(1996), 양영하(1998), 전영옥(2006)에서 논의가 있었다. 담화는 여러 층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마디나 단위를 설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여기서는 의미론적인 기준 즉 의미연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글말에 비유하자면 단락의 범주에 든다.
- 9) 윗줄에 있는 화살표와 아랫줄에 있는 화살표의 의미는 다르다. 윗줄에 있는 화살표는 중심소 후보들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아랫줄에 있는 화살표는 중심소를 확인하는 경로를 보여준다.

앞으로 이어지는 중심소는 담화에서 두드러진 정도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중심소는 선호되는 중심소(preferred center; C_p)라 부른다. 이 선호되는 중심소는 뒤에서 이어지는 중심소에 대한 예측을 하도록 해준다. 말하자면 선호되는 중심소는 앞선 발화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예측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뒤에서 이어지는 중심소는 선호되는 중심소를 예측하게 하지는 않는다. 뒤에서 이어지는 중심소 가운데 무엇이 선호되는 중심소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심소 이론의 핵심이다(Walker, Joshi, Prince 엮음 1994 : 3). 그것을 밝혀놓아야 발화들의 연결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심리언어학적인 연구를 통해 하나의 발화에는 뒤에서 이어지는 중심소가 하나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중심소 이론의 제약 조건 가운데 하나이다.¹⁰⁾ 중심소 이론에서는 이 제약 조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중심소 목록들은 발화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조건, 발화에서 실현되는, 앞으로 이어지는 중심소 목록 가운데 가장 순위가 높은 것이 뒤에서 이어지는 중심소가 되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만약 현재 발화(U_i)의 선호되는 중심소로 다음 발화(U_{i+1})에서 실현된다면 그것은 뒤에서 이어지는 중심소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말하기의 모습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학습자나 연구자들에게 앞으로 이어지는 중심소(C_f)의 지위를 밝혀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지는 중심소는 이어질 수 있는 중심소의 요소 목록만을 제공할 뿐이고 중심소의 구체적인 실현은 뒤에서 이어지는 중심소로 실현될 뿐이기 때문이다. 중심소의 지위는 그 개체가 실현되는 문법적인 역할,

10) 편의상 이를 제약 조건1이라고 한다면 제약 조건1은 중심소 이론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담화 처리 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뒤에서 이어지는 중심소가 많을 경우 즉 확인해야 할 중심소가 많을 경우나 분명하지 않은 중심소 후보들이 많을 경우 앞의 예문 (1)과 (2)에서 보듯이 의미연결된 담화로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현되는 표면 구조, 정보 지위와 같은 일련의, 발화에 관련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은 문법적인 역할에 따라 제안된 중심소의 지위이다. 이 지위는 앞으로 이어지는 중심소 가운데 선호되는 중심소가 될 수 있는 순서를 나타낸다.

- (3) 문법 기능에 따른 앞으로 이어지는 중심소의 지위(Brennan, Friedman, Pollard 1987)
주어 > 목적어(들) > 다른 문장성분

한편 일본어의 경우 중심소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고 제안한다.

- (4) 일본어에서 앞으로 이어지는 중심소 지위(Walker, Iida, Cote 1994)
(문법적이거나 생략된) 주제 > 감정이입 > 주어 > 목적어(들) > 다른 문장성분

다음으로 발화가 나타나는 담화 마디의 의미연결 정도를 재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전이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심소 이론에서는 이를 위해 규칙을 제안하는데 규칙 2가 선호되는 순서를 보여준다.

- (5) 중심소 이론에서 제안한 규칙(Walker, Joshi, and Prince 1998 : 4)
① 앞으로 이어지는 중심소(U_{i+1} , D)의 몇몇이 U_i 에서 대명사로 실현된다면, 뒤에서 이어지는 중심소의 경우도 대명사로 실현된다.
② 전이 상태는 순서화되어 있다. [이어짐](continue) > [유지함](retain) > [순조로운 전환](smooth-shift) > [겉끄러운 전환](rough-shift)¹¹⁾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개의 중심소 즉 앞으로 이어지는 중심소와 뒤에 서 이어지는 중심소의 관계에 따라 (5)-①은 잉여적인 규칙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중심소의 형식을 지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말하자

11) 영어를 그대로 뒤치기보다는 간단하게 선호되는 순서만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은 의미연결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면 형식의 일관성을 자리매김할 필요성을 지정해 준다. 규칙 (5)-②는 의미연결의 정도가 중심소가 발화들 사이에 연결되는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는 우리의 직관에도 들어맞는데 같은 대상을 주어로 내세워 계속 발화가 이어지는 경우 더 의미연결이 잘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순서에 따라 앞선 발화와 현재 발화에서 대명사의 결속을 추론하는 데 인지적 부담을 지우고 그에 따라 시간에서 지연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들 규칙을 심리언어학적 관점에서 검토한 논의들이 있다. Brennan(1998), Hudson-D'Zmura, Tanenhaus(1998)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Brennan(1998)에서는 산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해에서 조음사 해석과 관련하여 구절 단위로 인식이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중심소에 대한 처리가 일어나는 시점과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로 산출이 구절 단위로 일어나듯이 이해에서도 구절 단위로 이뤄짐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Hudson-D'Zmura, Tanenhaus(1998)에서는 (5)-②에 제시한 전이 유형들의 앞뒤 관계에 따른 의미연결의 정도를 실험한 논의이다. 특히 Di Eugenio(1998)는 주어 생략이 [이어짐]을 알려주는 것이며 강세를 받은 대명사는 [유지함]이나 [전환]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중심소 이론에서는 (5)-②에서 제시된 전이 상태를 구별하기 위해, 이전 발화 U_{i-1} 에서 현재의 발화 U_i 로 뒤에서 이어지는 중심소인 Cb가 같은지 여부, 그리고 발화 U_i 에서 선호되는 중심소와 뒤에서 이어지는 중심소가 같은지 여부에 바탕을 두고 의미연결 유형을 가르고 있다. 이를 형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 중심소 전이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Brennan, Friedman, Pollard 1987)

① $Cb(U_i) = Cb(U_{i-1})$, 혹은 $Cb(U_{i-1}) = [?]$

② $Cb(U_i) = Cp(U_i)$

이들 기준은 적용여부를 고려하여 네 개의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6)-①에서 두 번째 부분의 전형적인 예는 U_{i-1} 이 담화를 시작하는 문장

인 경우로, 뒤에서 이어지는 중심소가 있지 않다. 위의 기준에 따라 중심소 이론에서는 전이되어 의미연결되는 상태를 다음과 같이 형식화하였다.

〈표 1〉 중심소 전이 상태

	$Cb(U_i) = Cb(U_{i-1})$, 혹은 $Cb(U_{i-1}) = \{?\}$	$Cb(U_i) \neq Cb(U_{i-1})$
$Cb(U_i) = Cp(U_i)$	① [이어짐](continue)	③ [순조로운 전환](smooth-shift)
$Cb(U_i) \neq Cp(U_i)$	② [유지함](retain)	④ [꺾끄러운 전환](rough-shift)

[유지함](retain)¹²⁾은 Grosz, Joshi, Weinstein(1986)에 따르면 현재 발화에서 지위가 낮은 새로운 개체를 실현시킴으로써 다음 발화에서 소개하려는 의도로 이를 알려주는 중심소 전이이다. 위의 표에서 ③과 ④는 Brennan, Friedman, Pollard(1987)에서 구별하였는데, 몇몇 연구에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기도 한다(Walker, Joshi, Prince 1998 : 6). ④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발화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렬을 짝지워 나가는 이론적인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표 1>을 바탕으로 앞의 예문 (1), (2)에서 중심소 전이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담화에서 중심소 전이의 사례-1)

예문번호	Cb	Cf	Cp	중심소 전이
(1) - ①	없음	갑수, 철수, 차	철수	없음
(1) - ②	철수	철수, 차문, 갑수, 차	철수	[이어짐]
(1) - ③	철수	철수, 차문	철수	[이어짐]
(2) - ①	없음	갑수, 철수, 차	철수	없음
(2) - ②	철수	갑수, 차, 철수 차문	철수	[이어짐]
(2) - ③	갑수	갑수, 엔진 덮개	갑수	[순조로운 전환]

12) 영어의 경우 ‘유지함’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Passonneau 1998, Di Eugenio 1998, Hurewitz 1998). 이때 ‘유지함’의 의미는 이어지는 두 문장의 Cb는 같아서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다음의 사례는 우리말과 일본어에 자주 나타나는 생략 구문에서 중심소 전이의 해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 (7) ① 철수가 영화를 보러 갔다.
 ② 구내 매점에서 병수를 만났다.
 ③ 음료수를 사 주었다.

(7)의 ②과 ③에는 생략된 주어가 있다. 이 생략된 주어는 ②에서는 ‘철수’인 것이 분명하지만 ③에서는 철수와 병수 둘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에 따라 해석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주어를 누구로 선택하는가에 따라 중심소가 전이되는 모습이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7)-1은 병수를, (7)-2는 철수를 주어로 선택하는 경우에 중심소가 전이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표 3〉 담화에서 중심소 전이 사례-2)

예문번호	Cb	Cf	Cp	중심소 전이
7 - ②	철수	철수, 병수, 구내매점	철수	[이어짐]
(7) - 1	철수	갑수, 철수, 음료수	철수	[이어짐]
(7) - 2	철수	철수, 차문, 갑수, 차	병수	[유지함]

중심소 전이가 실재적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¹³⁾

13) 1990년대 이후 언어학에서 생략 현상에 대한 관심이 불어나고, 언어심리학에서 문장을 넘어서는 더 큰 층위의 대응 및 생략 현상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중심소 이론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중심소 이론 자체가 지엽적인 의미연결에 너무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몇 언어학자들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그에 바탕을 둔 연구가 드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개요

여기서는 먼저 연구 대상을 소개하고,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지엽적 의미연결의 인식에 대한 검정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¹⁴⁾ 이들은 수학과 과학의 성적이 높으며 1학년 초부터 수학과 과학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자연과학 계열에 흥미가 높다. 그렇지만 일반계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4단위를 이수하였기 때문에 이 조사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과제(1)~(3)과 과제(4)로 나뉘는데 이들은 참여학생들의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학생들이 참여한 방식에 따라 나누면 과제(1)~(3)은 직접 면담을 통해 참여한 학생이 40명인데 이들은 응답 시간을 재었다. 31명의 학생은 지필로 응답하게 하였다. 과제(4)에서는 이 조사연구에 응답한 71명의 학생이 모두 지필로 응답하게 하였다. 요약하자면 연구문제1의 검정을 위해서는 40명, 연구문제2와 3의 검정을 위해서는 71명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2. 연구문제와 절차

앞의 <표 1>에서 제시한 의미연결 유형은 이해 주체의 정보처리 즉 정확도와 처리 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보면 선호되는 의미연결 유형도 있으리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기

14) 실시 시기는 2010년 11월 세 번째 화, 목요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였다.

서는 세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정해 보는 과정을 거치기로 한다.

(8) 지엽적 의미연결 인식에 관한 연구문제

연구문제1) 담화가 의미연결되는 정도에 따라 학습자들이 결속 대상을 찾는 시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2) 담화가 의미연결되는 정도에 따라 학습자들이 결속 대상을 찾는 정확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3) 담화에서 자연스럽다고 인식되는 의미연결 유형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1)¹⁵⁾의 검정을 위해서 세 개의 덩잇글을 제시하고 (9)-①, ②에서는 ‘그’가 가리키는 대상을, ③에서는 생략된 주어를 찾도록 하였다. 이들은 각각 과제(1), 과제(2), 과제(3)으로 언급한다.

(9) 연구문제1)의 검정을 위해 제시한 덩잇글

① ㉠ 세차하는 갑수를 철수가 도와주었다.

㉡ 갑수가 차에 왁스를 먹이는 동안 그는 차문을 닦았다.

㉢ 그는 한쪽 차문에 비누칠을 하였다.

② ㉠ 음식을 장만하는 갑수를 철수가 도와주었다.

㉡ 갑수가 찌개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설거지를 하였다.

㉢ 그는 찌개에 넣을 파를 썰었다.

③ ㉠ 영수는 최신 컴퓨터를 샀다.

㉡ 을수에게 그걸 즉각 보여 주었다.

㉢ 컴퓨터에 새로 장착된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9)-①의 의미연결은 [이어짐, 이어짐]의 의미연결을 보인다. 그에 비해 (9)-②는 [이어짐, 유지함]의 의미연결을 보인다. (9)-②에서 ㉡~㉢이 [유

15) 이 연구에서 검정해야 될 가설 차원의 진술을 가설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귀무가설이나 대안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검정할 만한 연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인들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지함]의 의미연결을 보이는 것은 뒤에서 이어지는 중심소(Cb)와 선호되는 중심소(Cp)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이론적인 가정에 따르면 ①-㉔보다는 ②-㉔에서 대명사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해 주체에 따라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③에서는 생략된 주어를 찾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㉑~㉓으로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중심소가 [이어짐]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㉒~㉔으로 문장이 바뀔 때 생략된 주어로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두 개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영수일 수도 있으며 을수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영수를 주어로 선택할 경우 두 문장의 의미연결 유형은 [이어짐]이 된다. 그렇지만 을수를 주어로 선택할 경우 [유지함]이 된다. 뒤에서 이어지는 중심소와 선호되는 중심소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C_b \neq C_p$). 따라서 대부분의 이해 주체들은 [이어짐] 의미연결을 선호하기 때문에 영수가 생략된 주어라고 생각할 것이다.

과제(4)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연결 유형을 제시하고 의미연결이 자연스러운지 판단하게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제는 다섯이었다. 다음은 제시한 덩잇글이다.

(10) 과제(4)에서 제시한 덩잇글

- ① 갑수가 학교에 가고 있었다. 가는 길에 문방구에 들렀다. 그곳에서 철수를 만났다. 철수에게 연필을 사주었다.
- ② 갑수가 학교에 가고 있었다. 가는 길에 문방구에 들렀다. 그곳에서 철수는 그를 만났다. 갑수가 그에게 연필을 사 주었다.
- ③ 갑수가 학교에 가고 있었다. 가는 길에 문방구에 들렀다. 그곳에서 철수를 만났다. 철수가 그에게 연필을 사 주었다.
- ④ 갑수가 학교에 가고 있었다. 가는 길에 문방구에 들렀다. 그곳에서 철수는 그를 만났다. 갑수에게 연필을 사주었다.
- ⑤ 갑수가 학교에 가고 있었다. 가는 길에 문방구에 들렀다. 그곳에서 철수를 만났다. 갑수가 철수에게 연필을 사주었다.

이들은 두 번째 문장까지는 [이어짐]의 의미연결을 보이지만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의 연결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과제(4)에서 제시한 덩잇글의 의미연결 유형

덩잇글 번호	의미연결 유형		
	첫 번째 ~ 두 번째	두 번째 ~ 세 번째	세 번째 ~ 네 번째
①	[이어짐]	[이어짐]	[이어짐]
②	[이어짐]	[유지함]	[결끄러운 전환]
③	[이어짐]	[이어짐]	[유지함]
④	[이어짐]	[유지함]	[부드러운 전환]
⑤	[이어짐]	[이어짐]	[이어짐]

덩잇글 ①, ⑤는 의미연결 유형이 같은데 네 번째 문장에 명시적으로 주어가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①에서는 명시적으로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⑤에서는 명시적으로 주어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생략이 의미연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시하였다. 이들은 5개의 판단과제로 짝을 지었는데 의미연결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중심으로 과제들의 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⁶⁾

〈표 5〉 판단과제의 짝과 예상되는 선호도

판단과제	대응짝과 의미연결 유형		예상 선호도
1)	① [이어짐]	② [결끄러운 전환]	①
2)	① [이어짐]	③ [유지함]	①
3)	② [결끄러운 전환]	④ [부드러운 전환]	④
4)	③ [유지함]	④ [부드러운 전환]	③
5)	① [이어짐]	⑤ [이어짐]	①

16) 과제(4)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반응의 갈래가 세 갈래이기 때문에 나눌 때 정수로 나누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여기서는 예측 빈도를 23으로 삼는다). 통계 분석에서 제외한 두 개의 반응지는 무작위로 모인 것 가운데 제일 뒤에 있는 두 개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의미연결 유형과 결속 대상 찾기에 걸리는 시간

의미연결 유형과 결속 대상 찾기에 있어서 시간에 대한, 연구문제1)에 대한 검정을 먼저 하기로 한다. 과제(1)과 (2)에 걸쳐 대명사 파악에 걸리는 시간을 제어서 대응표본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SPSS 12.0 한글판 사용).

〈표 6〉 과제(1)과 과제(2)에서 걸리는 시간 대응 표본 검정 결과

	평균	N	표준 편차	차이의 95%신뢰구간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하한	상한			
과제(1)	12.83	40	5.068	3.359	6.191	**6.819	39	.000
과제(2)	8.05	40	3.721					

위 표를 보면 두 과제 사이에 반응 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의확률($p < .01$)에서 t 값이 문턱값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평균에서도 두 과제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따르면 의미연결 유형에 따라 과제(1)이 과제(2)보다 시간이 덜 걸려야 한다. 그렇지만 오히려 과제(1)이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결속 대상을 찾는 데 의미연결 유형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시된 두 과제 자료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왁스를 먹이다’라는 표현과 ‘비누칠을 하다’는 표현의 의미 관계가 쉽게 이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특히 과제(2)에서 제시되었던 ‘찌개를 준비하다’와 ‘설거지를 하다’의 의미 관계와 쉽고 어려운 정도가 비교될 수 있다.¹⁷⁾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하나는 지엽적인 의

미연결의 판단에도 이해 주체의 추론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의미연결 유형만이 학습자의 인지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낱말들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두 번째의 해석은 명제를 이루고 있는 어휘의미 구조와 지엽적인 의미관계, 대명사 결속을 다루고 있는 Cote(1998), Hudson-D’Zumra(1998)에서도 나타난다.

2. 의미연결 유형과 결속 대상 찾기에서 정확도

다음으로 연구문제2) 즉 지엽적인 의미연결 유형에 따라 결속대상을 찾는 정확도에 차이가 있으리라는 연구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과제(1)과 과제(2)에서 ‘그’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표 7〉 과제(1)과 과제(2)에서 응답 빈도와 비율

		과제1		과제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	철수	71	100	71	100
	갑수	0	0	0	0
㉡	철수	57	80.28	1	1.41
	갑수	14	19.72	70	98.59

과제(1)을 먼저 보기로 한다. ㉠ 문장에서는 ‘철수’가 100%의 빈도로 선택되었다. 이럴 경우 의미연결 유형 가운데 [이어짐]이 나타난다. 문제는 문장 ㉡에서 나타나는데 별다른 대안이 없는 한 ‘철수’가 선택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의미연결 유형은 [이어짐]이 된다. 그런데 ‘갑수’를 선택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 연구자가 설정하였던 가설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여명의 참여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왁스를 먹이는 일과 차문에 비누를 칠하는 일의 정확한 의미를 짚어내지 못하였다(12명). 왁스를 먹이는 일이 광택을 내는 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과제(2)를 보면 앞서 지적한 것처럼 ㉠ 문장에서 ‘그’는 철수를 가리키며, ㉡ 문장에서 ‘그’는 갑수이다. ㉠~㉡의 의미연결 유형을 [이어짐]으로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그’가 가리키는 대상은 철수이다. 그렇지만 ㉡ 문장의 내용으로 보아 철수가 아니라 갑수이어야 한다. 파를 써는 일은 설거지를 하는 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그’가 가리키는 대상은 갑수가 되고 이때의 의미연결 유형은 [이어짐]이 아니라 [유지함]이 된다.

과제(1)과 (2)의 의미연결 유형을 고려해 보면 과제(1)의 정확도가 더 높아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오히려 과제(2)의 정답률이 더 높다. 여기에 대해서도 가설1에 대한 해석에서와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여전히 지엽적인 의미연결 유형보다 의미해석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엽적인 의미연결에서 선호되는 유형

과제(3)에서는 생략된 주어를 찾으려 하였다. ㉠문장의 주어는 71명의 학생 모두 ‘영수’를 선택하였다. 제한된 담화 상황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시대상이다. ㉡ 문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시된 담화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주어가 둘이다. ‘영수’일 수도 있으며 ‘을수’일 수도 있다. ‘영수’를 선택하면 의미연결 유형은 [이어짐]이 되고 ‘을수’를 선택한다면 [유지함]이 된다. 71명의 참여자 가운데 67명(94.37%)은 ‘영수’를 생략된 주어로 보았으며 4명만(5.63%)이 을수를 생략된 주어로 선택하였다. 이는 의미연결 유형 가운데 [유지함]보다는 [이어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다음은 과제(4)를 통해서 의미연결 유형들 사이의 선호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표 8>은 각 과제별 선호도에 대한 반응 빈도이다.

〈표 8〉 각 과제별 선호도 반응 빈도

판단과제 ⁸⁾	반응 빈도						계
1)	①	64	②	4	같음	1	69
2)	①	19	③	28	같음	22	69
3)	②	36	④	20	같음	13	69
4)	③	61	④	4	같음	4	69
5)	①	17	⑤	38	같음	14	69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카이제곱 검정¹⁹⁾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판단과제 1)에서 $\chi^2=128.75(p=.000)$ 이었다. 자유도 2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문턱값을 넘어섰으므로 어떤 경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①에 대한 빈도가 높으므로 학습자들은 의미연결 유형 가운데 [결끄러운 전환]보다 [이어짐]을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판단과제2)에서 $\chi^2=1.81(p=.418)$ 로 나타났다. 이는 둘 사이에 선호되는 경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어짐]과 [유지함] 사이에 선호되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판단과제3)에서 $\chi^2=12.09(p<.01)$ 로 나타났다. 이는 [결끄러운 전환]과 [부드러운 전환] 의미연결 유형에서 선호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을 통해서 볼 때 선호도는 [부드러운 전환]보다 [결끄러운 전환]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선호도를 결정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 잔차(standardized residual)를 구해

18) 과제1)~3)은 탐색과제 혹은 해결과제라고 한다면 과제4)에서 세부적으로 제시한 과제는 선호도나 자연스러움을 판단하는 과제라고 이름붙일 수 있다.

19) 빈도를 자료로 하여 예측빈도와 관측빈도를 비교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이 χ^2 이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통계꾸러미 SPSS를 이용할 수 있는데 SPSS에서는 분석/기술통계량/교차분석을 이용한다. χ^2 을 셈하는 공식도 간단하기 때문에 직접 구할 수 있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chi^2 = \sum_{i=1}^k \frac{(O-E)^2}{E}$$

여기서 O= 관측 빈도, E=예측 빈도, k=범주, 집단, 혹은 있을 수 있는 결과들을 나타낸다(Hinkle, Wiersma, Jurs 2003 : 547).

본 결과 [꺾끄러운 전환]에 대한 선호도와 ‘같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준화 잔차는 각각 2.71과 -2.08).²⁰⁾

판단과제4)에서 $\chi^2=94.26(p=.000)$ 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선호도에 경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유지함]에 대한 선호도가 [부드러운 전환]보다 눈에 띄게 높음을 알 수 있다. 판단과제5)에서 $\chi^2=14.87(p<.01)$ 인데 이는 두 문장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주어의 생략이 일반적으로 우리말에서 자유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에 따라 학습자들도 주어가 생략된 문장을 더 선호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판단과제3)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통겅값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 잔차를 구해본 결과 ⑤번 덩잇글에 대한 선호도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었다(표준화 잔차는 3.12).

판단과제를 중심으로 하였던 과제(4)에서 나온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의미연결 유형의 선호도 조사의 결과

- ① 학습자들은 [꺾끄러운 전환]보다 [이어짐]을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 ② 학습자들은 [이어짐]과 [유지함] 사이에 선호도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
- ③ 학습자들은 [꺾끄러운 전환]을 [부드러운 전환]보다 더 선호하였다.
- ④ 학습자들은 [부드러운 전환]보다 [유지함]을 더 선호하였다.
- ⑤ 학습자들은 [이어짐] 의미연결에서 주어가 없는 문장보다 주어가 있는 문장을 더 선호하였다.

20) Hinkle, Wiersma, Jurs(2003 : 552)에 따르면 표준화 잔차를 구하는 공식은

$$R = \frac{O - E}{\sqrt{E}} \text{ 이다(약자의 의미는 앞에서와 같다).}$$

어떤 범주에 대한 표준화 잔차가 2.00(절댓값)보다 클 때, 유의한 χ^2 값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먼저 (11)-⑤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11)의 ⑤에 대해서는 이재호(2009)에서 부분적으로 지적되었다.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완전명사구의 반복이 대명사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우리말에서는 명사반복 페널티(repeated noun penalty)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①~④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미연결 유형 사이의 선호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의미연결 유형의 선호도

[이어짐] = [유지함] > [겉끄러운 전환] > [부드러운 전환]

이는 (5)에서 제시한 규칙2와는 차이가 있다. 가장 선호도가 높으리라 생각하는 의미연결 유형인 [이어짐]이 [유지함]과 차이가 없다는 점, [겉끄러운 전환]과 [부드러운 전환]이 선호도 순서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과제(3)에서 나타난 선호도 즉 [이어짐] 의미연결 유형을 더 선호하는 경향과 (12)에 나타난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제(3)에서는 산출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판단과제2)는 이해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산출의 과정에서는 수용하는 주체를 고려하여 자연스럽다고 인식하는 의미연결 유형이 되도록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이해의 과정에서는 담화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고 해석 가능하다.

(12)에서 문제는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의미연결 유형과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의미연결 유형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의미연결이 이뤄지도록 추론을 적극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생이라면 무의식적으로 의미연결이 이뤄지도록 추론을 한다. 이런 추론이 일어난다면 좀 더 추론을 많이 하도록 요구하는 [겉끄러운 전환]을 더 선호한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는 종단 연구를 통한 검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논의

이 연구에서는 의미연결과 통사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대명사의 계속과 생략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해결과제와 판단과제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구문제1)에서 대명사의 지시대상을 찾는 과제에서 차이가 의미연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담화 문법의 일부로 지엽적인 의미연결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만 직관과는 달리 [유지함]보다 [이어짐]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는 관찰 대상을 넓히고 필요하다면 종단 연구를 해볼 수도 있다. 아울러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엄밀한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2)에서 정확도에서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우리의 직관과는 달리 [유지함]보다 [이어짐]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좀 더 검정이 필요하다.

연구문제1)과 2)는 직관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선행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듯이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의미연결 유형과 집단의 범위를 넓히는 여러 차례의 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중심소 이론에서는 지엽적인 의미연결 유형만으로 대명사 해석의 정확성과 시간의 문제가 결정된다고 하였으나, 이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문제3)은 의미연결 유형에 선호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과제(3)에서는 의미연결 유형 [이어짐]에 대한 선호도가 거의 절대적이었지만 판단과제에서는 [이어짐]과 [유지함]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 두 의미연결 유형에 대한 선호도는 [전환]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언어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끄러운 전환]이 [부드러운 전환]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은 학습자들이 덩잇글 차원의 의미 연결뿐만 아니라 지엽적인 차원의 의미연결을 위해 추론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연구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시간적인 제약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검정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V. 마무리

지금까지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미연결 유형에 대한 선호도, 대명사의 결속 대상 찾기를 조사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연구는 지금까지 조사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대명사의 결속 대상 찾기에 대하여 의미연결 유형과 관련하여 시간과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언어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지엽적인 의미연결 유형의 선호도를 우리말을 자료로 삼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학습자들에게 의미연결 유형을 명시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즉 지엽적인 의미연결로서 아주 짧은 단락에서도 의미연결 유형에 선호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앞서 중심소 이론을 소개하고 적용한 논의보다 한 걸음 나아간 연구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앞으로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위한 밑바탕이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결끄러운 전환]과 [부드러운 전환]이 [이어짐]과 [유지함]보다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담화 교육에서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한다. 언어 산출 과정에서 선호도가 높은 의미연결 유형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담화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선호도가 높은 의미연결 유형을 산출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담화 문법교육의 내용에 단락 혹은 담

화파디 사이의 의미연결을 가르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과제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며, 자연스러운 담화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깊고 더 다듬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 본 논문은 2011. 2. 28. 투고되었으며, 2011. 3. 10. 심사가 시작되어 2011.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미경(2003), “중심화 이론에서 본 한국어 논항의 생략현상”, 『언어』 28-1, 29~49.
- 김봉순(2002), 『국어교육과 텍스트 언어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재봉(1999), 『텍스트 요약 전략에 대한 국어교육학적 연구』, 집문당.
- 김지홍(2010), 『언어의 심층과 언어교육』, 도서출판 경진.
- 김호정(2006), “담화 차원의 문법교육 내용 연구”, 『텍스트 언어학』 21, 145~177.
- 박성현(2006), “한국어 말차레 체계와 화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효정(2005), “담화분석을 통한 대명사 연구”, 『인문과학연구』 6집, 228~245.
- 양영하(1998), “방송 상담 대화의 구조와 체계 분석”,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2000), 『텍스트언어학과 국어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재호(2009), “설명문의 대용어 참조해결과정 : 지시사 유형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547~569.
- 임규홍(2010), “‘문법’과 ‘독서’의 통합성”, 『문법교육 제12호』, 39~64.
- 전영옥(2006), “구어의 단위 연구”, 『한말연구』 19, 271~299.
- 허선익(2008), 논술문의 내용 전개 구조와 교육적 함의, 『새국어교육』 79, 447~476.
- _____(2009), “국어 지식교육의 자리매김과 그 원리”, 『국어교육학연구』 34, 국어교육학회.
- Beaugrande and Dressler(1981), 『텍스트언어학입문』(김태옥 외 뒤침, 양영자).
- Brennan(1998), Centering as a Psychological Resource for Achieving Joint Reference in Spontaneous Discourse, in Walker, Josh, and Prince eds. (1998), 227~249.
- Cote(1998), Ranking Forward-Lookomg Centers, in Walker, Josh, and Prince eds. (1998), 55~70.
- Di Eugenio(1998), Centering in Italian, in Walker, Josh, and Prince eds. (1998), 115~139.
- Grosz and Ziv(1998), Centering, Global Focus, and Right-Dislocation, in Walker, Josh, and Prince eds. (1998), 293~308.
- Gundel(1998), Centering Theory and the Givenness Hierarchy, in Walker, Josh, Prince eds. (1998), 183~198.
- Hinkle, Wiersma, and Jurs(2003), *Applied Statistics*, Houghton Mifflin Company.
- Hoffman(1998), Word Order, Information Structure, and Centering in Turkish, in Walker, Josh, and Prince eds. (1998), 251~272.
- Hudson-D'Zmura(1998), Control and Event Structure : The View from the Center, in Walker, Josh, and Prince eds. (1998), 71~88.
- Hudson-D'Zmura and Tanenhaus(1998), Assessing Antecedents to Ambiguous Pronouns, in

- Walker, Josh, Prince eds. (1998), 199~226.
- Hurewitz(1998), A Qualitative Look at Discourse Coherence, in Walker, Josh, and Prince eds. (1998), 273~292.
- Levin & Hovav(2005), *Argument Re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ida(1998), Discourse Coherence and Shifting Centers in Japanese Texts, in Walker, Josh, and Prince eds. (1998), 161~180.
- Joshi and Winstein(1998), Formal Systems for Complexity and Control of Inference : A Reprise and Some Hints, in Walker, Josh, and Prince eds. (1998), 31~38.
- Roberts(1998), The Place of Centering in a General Theory of Anaphora Resolution, in Walker, Josh, and Prince eds. (1998), 358~400.
- Walker(1998), Centering, Anaphora Resolution, and Discourse Structure, in Walker, Josh, and Prince eds. (1998), 401~435.
- Walker, Joshi, and Prince 위음 (1998), *Centering Theory in Discourse*, Clarendon Press.

<초록>

담화에서 지엽적인 의미연결 인식 연구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허선익

이 연구에서는 입말과 글말을 아우르는 담화교육에서 통사결속과 의미연결이 담화교육의 내용이 되며, 실제로 이들을 학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심소 이론에서 제시한 지엽적 의미연결 유형을 바탕으로 판단과제와 해결과제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로, 의미연결 유형에 따라 대명사를 해결하는 시간과 정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다만 중심소 이론에서의 예측이나 직관과는 달리 [유지함]보다 [이어짐]에서 더 시간이 걸리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로, 의미연결 유형에서는 선호도가 확연히 나타난다. [이어짐]=[유지함] > [결끄러운 전환] > [부드러운 전환]의 선호도를 보인다. 이와 같은 선호도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화의 이해와 산출에서 지엽적인 의미연결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앞으로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위한 밑바탕이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결끄러운 전환]과 [부드러운 전환]이 [이어짐]과 [유지함]보다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담화 교육에서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한다. 언어 산출 과정에서 선호도가 높은 의미연결 유형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담화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선호도가 높은 의미연결 유형을 산출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담화 문법교육의 내용에 단락 혹은 담화마디 사이의 의미연결을 가르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과제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핵심어】 지엽적 의미연결, 중심소 이론, 담화 교육, 과제 중심 교육과정

<Abstract>

A Study of Recognition on Local Coherence in Discourse

—In the case of highschool freshmen—

Heo, Seon-ik

In this study pronominal binding and ellipsis has been studied via both resolution tasks and judgement tasks which had been presented to 71 highschool students. Through this article, three points have been tested.

One of them is that pronominal resolution might be affected on its time by the types of local coherence. The other point i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accuracy between them.

Third point is that there is preference for the type of local coherence. Especially subjects have a tendency to prefer as follows : continue = retain > smooth-shift > rough-shift. This is not parallel to the fact identified by centering theory.

According to the fact which have been identified and stipulated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discursive education should be prepar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local coherence, centering theory, discourse education, task-based education